

# ‘시민 중심’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 나섰다

## 시민 문화 참여 기회 증대 목표 문화도시위원회 개최 의견공유

목포시가 시민 주도 문화도시 조성에 나섰다. 문화도시 위원회를 개최해 시민 중심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민 중심의 목포만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목포시가 올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지 2년차를 맞았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목포시는 2020년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거쳐 2021년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돼 2022년부터 5년간 198억원의 사업비로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문화도시로 지정된 목포시는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라는 비전으로 시민들의 문화참여 기회 증대 및 문화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문화도시위원회, 문화도시자문위원회, 문화통장 등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차년도 사업을 진행했다.

국·도·시비 30억원을 투입해 문화갯물학교, 생활장인대학 등 지역 문화 인재양성을 활성화하고 꿈지락실험실 2개소 운영, 문화교류탐험대 등 시민들의 문화참여와 향유 콘텐츠 개발에 힘썼다.

모두 22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문체부 우수도시 선정을 통해 보다 안

정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목포시는 2023년 2년차 사업에서는 ‘도시를 잇다, 문화항구도시 목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올해는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더욱 확대하고 전남 서남권 지역의 교류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본격 사업에 앞서 지난 17일 문화도시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 위촉에 이어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

문화도시위원회는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2021년 출범한 문화도시 업무 추진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다.

목포대 최성환 교수를 위원장으로 시의회, 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2년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도시 위원들은 지

난해 문화도시 사업 추진결과와 20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와 사업방향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치유사업과 미래문화준비단, 문화도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목포만의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토속문화 리메이크, 목포문화디지도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교류탐험대, 목포문화의 날, 문화향구페스타 등 사업을 진행해 문화도시 브랜드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도시위원회, 시민협의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목포만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목포시, 43억원 투입

목포시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갖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목포시는 43억원을 투입해 목포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 50여개 기관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한다.

장애일 일자리는 △일반형 63명 △복지형 292명 △특화형 19명 △중증장애일자리형 38명 등 4개 유형에 총 412명이 참여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보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에서는 장애인의 재활과 편의,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목포=정기찬 기자**

## 사랑의 헌옷 수거봉사활동 목포시 하당동 새마을부녀회



목포시 하당동 새마을부녀회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헌옷 수거 활동을 추진했다.

21일 목포시 하당동 새마을부녀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된 헌옷 수거는 새마을부녀회원이 참여해 안 입는 옷과 신발, 이불 등 100kg가량을 수거했고 수거한 헌 옷은 헌 옷 경진대회에 활용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김수정 새마을부녀회장은 “헌 옷 수거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자 하당동장은 “봉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취약계층에 ITQ 프로그램 운영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관장 최진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기술자격 시험(ITQ)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ITQ 프로그램은 ‘목포지역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전문 강사 지도하에 ITQ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취업 기회를 넓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목포시가족센터와 연계해 22일부터 7월5일까지 16회에 걸쳐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 꽃중년 건강교실 강사 18명 위촉 목포시, 4월부터 경로당서 활동

목포시는 지난 16일 2023년 꽃중년 건강교실 강사 18명을 위촉하고 꽃중년 건강교실 운영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꽃중년 건강교실 강사는 18명이다.

공개모집 후 후면접 및 심사평가를 거쳐 선발됐다. 오는 4월부터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래·레크리에이션·노인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꽃중년 건강교실은 그동안 노래 위주의 해피실버 교실로 운영되다 2021년부터 레크리에이션 및 노인건강 체조를 포함한 통합건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꽃중년 건강교실이 어르신들의 웃음과 건강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2023년 꽃중년 건강교실 강사 18명을 위촉하고 4월부터 경로당 등을 찾아가 체조 등 통합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나설 예정이다. **목포시 제공**

## 저소득 다자녀 세대 영양제 지원 목포 이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포시 이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명열)가 저소득 및 다자녀(3자녀 이상)세대 아동에게 영양제를 지원했다.

21일 목포시 이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혜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저출산 시대에 맞서 더불어 함께 양육하는 마을 분위기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영양제는 주로 저소득 세대의 만 3세~만 7세(영양제 권장나이)의 아동에 120정 1통 또는 2통씩 총 23세대(50만원 상당)에 전달됐다.

윤명열 위원장은 “아동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성장이다. 취약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이 조망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목포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2009년 8월31 이전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12월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대수는 5등급 1300대, 4등급 100대이고 지게차·굴착기는 150대이며 차종·연식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동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

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3.5톤이상·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되며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접수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이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등기우편(경기도 안양

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이메일(1577-7121@aea.or.kr) 중 선택하면 되고, 보조금 액수 등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대수는 80대, 대당 1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 개별 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목포시는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4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목포시 표준주택 1331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했다. 목포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하락 했으며 열람대상은 2만954호이다.

개별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 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목포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 인근주택,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 고려해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주택가격은 4월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목포=정기찬 기자**